

「충청북도」

# 밝아오는 월악산 기슭

충북새마을 기술봉사단 전문위원

김 홍 은 (충북대임학과교수)

## 1. 월악산의 화전민촌

월악산의 가난한 화전민들과 외롭게 살아가는 산속 사람들을 위해 내가 배우고, 익히고 닦은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었을 뿐인데 그렇게 글로 옮기게 되니 공연히 부끄럽게 여겨진다.

이 글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월악산의 불행한 마을사람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나는 1965년 2월, 충북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3월 1일자로 모교인 충북대학 임학과 연습림(월악산 1,093m)에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월악산의 위치는 충주에서 동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60리쯤 가면 온천지인 수안보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25리를 걸어서 꼬불꼬불한 꼬부랑재(해발 800m)를 넘으면 충북 제천군 한수면 송계 2구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내가 주재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산골짜기마다 63호의 초라한 가옥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듯이 산비탈에 여기 저기 매달려 있다.

송계 2구는 1구와의 거리가 20여리나 떨어져 있고 면소재지와는 거리가 40리나 되는 험한 길을 도보로 가야할 정도로 아주 산간오지였다.

면소재지쪽으로 가려면 가끔 광산물을 출하하는 광산차를 이용하는데 이 차를 타게 되면, 체 속에는 덩어리 진 팔고물' 처럼 이리저리 밀리고 어느편 엉덩방아를 찧는게 일쑤지만 걷는

것 보다는 빠르므로 광물을 가득 실은 차를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였다.

우편물은 보통 일주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인편으로 오기 마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2구마을 사람들은 꼬부랑재를 넘나들며 수안보장을 볼 수 밖에 없었고 장날이면 줄을 지어 발곡식을 머리에 이고 가서 필요한 물건과 바꿔오곤 하였다.

교통이 불편해서 곡식을 두고도 팔 수가 없었고 금방 누가 죽어간다 하여도 속수무책으로 죽을때만 기다릴 뿐이였으며 충주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환자를 지게에 지고 꼬부랑재를 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였다.

이렇듯 깊은 산속의 불행한 사람들은 양치럼 온순하고 조용할 것 같아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로 도시에서 살다살다 못살고 들어왔거나 광산에 종사하다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곳에 정착할 마음이 없으며 성품이 거칠고 시기와 질투뿐인 이기주의자들이였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값을 가을에 고추값으로 계산하여 주는 고추돼지의 고기 2근값 때문에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할 정도로 끔찍한 사고가 났었지만 누구하나 말리지도 않고 남의 일 보듯 하였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인정없는 마을인지 충분히 알 것이다.

침침산으로 둘러싸인 들을 돌아보며 마을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모든 면에 미숙하고 젊은 나로서는 마을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며 산림관리를 하여 간다는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다.

## 2. 아동교육에 힘기울어

나는 국민학교 아동들을 한시간씩 저녁에 지도를 하여 주려고 학생들을 모아보았더니 국민학교 재학생이 32명, 금년 졸업생이 5명으로 모두 37명이나 되었지만 자기 주소와 성명을 똑바로 쓴 사람이 한명도 없었고 5학년 학생이 1~10까지도 못쓸 정도였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 이유를 아동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험한 산속길로 학교까지의 거리가 20리나 되고 개울을 11개나 건너야 하므로 구름만 끼어도 학교에 안가거나 학교가는 도중에 도시락만 먹고 돌아오곤 하여 1년내 학교가는 일수가 3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었고 학부모들이 너무 무관심한 탓도 있었다.

공부할 의욕을 잃은 학생들이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7, 1, 1, 1, 2, 3, 4 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1학년에서 졸업생까지 같은 수준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지칠줄 모른채 수업을 하였다.

1주일이 지나니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밤늦게까지 지켜보기도 하고 “여태껏 학교 다닌다고 책보 싸들고 다니더니 뭐했냐”면서 부끄러워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그렇게 1개월이 지나자 학생들도 따르기 시작했고 학부모들도 김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마을분들은 한결같이 “김선생님 우리동네 사람들이 모두 산감입니다. 매년 봄이면 3~4건의 산불이 났는데 금년은 안나잖아유”하며 격려하여 주었다.

나무를 베거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므로 서로서로 조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동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할줄 모르고 있어 학용품이 떨어져도 사주지 않고 방이 어두워도 등 하나 밝혀주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이었다.

여름방학때는 감나무 밑에서 수업을 하였다. 아침부터 자정이 가깝도록 가르치다보니 코피를

쏟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지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돈이 있어도 살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었다. 최악해질대로 최악해진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이라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을 잡아서 끓여 먹었다.

그런 불편한 몸으로도 해가 지기가 무섭게 모여드는 아동들의 불타는 향학열에 하루도 수업이 쉬지 않았다.

그렇게 지나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협조가 잘되었고 개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능한 힘껏 보살펴 주었다.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 일들 중에, 시 아버지를 모시고 단간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유근덕씨 부부에게 잡목을 이용하여 방을 마련해 주었던 일, 원인모를 화재를 당하여 삼시간에 불우한 처지가 된 최만희씨에게 마을사람들과 협동하여 가옥을 지어주었던 일,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불행한 이웃을 돕는 실천의 기회를 주어 식량을 스스로 거둔 것을 전달하게 하던 일 등, 모두가 마을사람들의 협동심을 길러준 산교훈적인 일이었다.

항상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상비약을 준비하여 마을사람들을 보살펴 주었고 척추골수염을 앓으면서 입원비가 없는 환자를 서로 도와 입원시켜 주었으며 고운 마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였다.

## 3. 垞地언어 學校設立

우리는 겨울방학에도 낮이나 밤이나 노력을 거듭하여 읽고 쓰고 계산하는 기초적인 지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고 2년째 부터는 자기학년의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3학년 학생이 5, 6학년 산수책에 나오는 문제까지도 풀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지도하고 노력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휼하였다.

마을의 몇몇 청년들에게 학교를 세워보자는 제안을 했더니 모두 찬성이었다.

그리하여 학부형들은 관리소로 오게 하여 학

교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나무는 절대로 베어서는 안되고 산속에 죽어있는 나무나 짙집마다 곡식가리하던 나무토막들을 모아 1호당 2토막씩 준비하여 달라고 일방적인 의견을 냈다.

1967년 4월 석천읍씨로부터 조용하고 양지바른 밭 30여평을 학교터로 회사받아 이 마을의 숙원인 학교 건립 작업이 시작되자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기쁨에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몇몇 번두리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뜻하지 않은 방해로 받아 작업 첫날부터 일을 중단하게 되어 “학교를 세우려는건 어떤 한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이 마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임을 설득시키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로 했다.

토지매입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으로 동산분교인가를 얻고 보니 2번째로 마을의 기쁨이었다.

그후 나는 충북대학교 입학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어 우리에게 슬픈 이별이 찾아왔다. 떠나오던날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을수도 없었고 나를 부여잡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산울림 되어 골안을 메웠다.

#### 4. 技術支援받아 마을발전 이뤄

그후 1969년 3월 동산분교에는 선생님이 한 분 부임하였고 새학교가 설립되어 창문학 동인회 학생들과 수집한 마을금고 500권과 학교종을 보내주었다.

창문학동인회를 1차 봉사반으로 보내어 150m의 학교주변 축대를 쌓았으며 여러번 봉사외 지도를 다녀왔다.

깊은 이 산골마을에도 새마을 가꾸기 선풍이 불어 마을환경개선과 마을길다리 놓기 사업이 전개되어 75년부터는 충북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지원협조를 받아 재원 및 기술지원을 받아 이 마을도 새마을의 면모를 하나둘 갖추기 시작 했다.

또 1977년 2월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치 못하는 권미화라는 학생을 진학시켰고 송계국민학교 5학년인 박영숙 어린이는 선행어린이로 문교부장관표창을 받았으나 환경이 불우한

고아임을 알고 중학교에 입학시켜 줄 것을 약속 하였다.

1978년 충북대학교 꽃나무학생회의 지도교수로 봉사반을 편성하여 1978년 1월, 송계 3구 마을과 결연을 맺고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9년 8월, 동산분교 학생들의 사회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초청 소재지인 청주를 견학시켜 주었다.

#### 5. 發展計劃세워 추진

꽃나무회의 초청으로 2박3일간 공업단지, 방송국, 신문사, 각기관등 17개소를 견학시켜 전문을 넓혀 주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선물을 주어 어린 이들을 더욱 기쁘게 하여 주었으며 꽃나무학생회 에서는 장학금 10만원을 전해주었다.

13년전 처음 송계리에 갔을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동차 조수가 되고 싶어 유”해서 어리둥절하였고 2년뒤에 물었을 때는 선생님 같은 산감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견학을 하고 돌아갈때는 과학자나 선생님이 되고 싶 다던 그 어린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더욱 노력할 각오다.

앞으로 월악산 기슭의 발전을 위한 나의 계획은,

첫째, 아름다운 월악산 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둘째, 특산물을 재배, 생산, 판매하고,

셋째, 실험중에 있는 감저장방법을 성공시켜 감의 생산이 많은 이마을의 수익성을 높이고,

넷째,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의 기술지도를 받으며 소득증대사업에 치중하여 보람있고 알찬 마을로 이끌 계획이다.

월악산은 국유림으로 산간민들은 산의 많은 혜택을 입으며 살아나가지만 산림보호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

월악산의 자연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자금지원과 깊은 배려를 바라고 싶다.

끝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그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